



## [한국인의 계층 이동 인식] 국민 절반, '한국에서 더 나은 상태로의 계층 이동 불가능!'

- 한국 사회 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? 최근 발표된 '2025 중산층 관련 인식 조사'(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)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잘 드러난다. 국민 절반(51%)이 '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'에 동의했으며, '한국에서는 한번 가난해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'는 응답도 50%였다. 이는 우리 사회 내 계층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한국 사회 내 계층 이동 가능성 평가 ('매우+약간 그렇다' 비율\*)

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보다  
나은 상태로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



한국에서는 한번 가난해지면  
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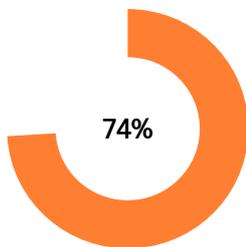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2025 중산층 관련 인식 조사, 2025.04.03.(전국 만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03.11.~03.14.)  
\*5점 척도

## '더 이상 한국 사회의 장밋빛 비전 기대하기 어렵다' 56%!

- 한국 사회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'앞으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 같다'에는 국민 74%가 동의해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뚜렷이 나타났고, '더 이상 한국 사회의 장밋빛 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'에도 국민 과반이 동의해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.

[그림] 한국 사회 전망 인식 ('매우+약간 그렇다' 비율\*)

앞으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 
더욱 커질 것 같다



더 이상 한국 사회의 장밋빛 비전을  
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



※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2025 중산층 관련 인식 조사, 2025.04.03.(전국 만 19~59세 성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5.03.11.~03.14.)  
\*5점 척도